



kbcsd

wbcsd Global Network

지속가능발전과 기업의 역할

Call to Action for Sustainable Korea 2030



목차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2. 기업 경영환경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4.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5. Sustainable Korea 2030 4대 구성요소
6. 3대 중점분야별 목표 및 Business Solution
7.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8. 중점 분야별 정책 제언
9. 구체적 추진 방안 사례 소개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한 발전

-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 “경제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의 선택을 넘어 생물종으로서 인류 전체의 “생존이냐? 멸망이냐?”의 절박성의 문제

▪ 우리 공동의 미래

- 미래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경제 발전으로 인한 환경·사회적인 희생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패러다임

2. 기업 경영환경

▪ 오늘날의 경영 환경

- 복잡성
- 불확실성

▪ 최고 경영자의 끊임없는 고민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우리 조직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 기업을 둘러싼 복잡한 경영환경

1

경제적

- 경기불황, 소비심리위축, 투자심리위축
- 깊어지는 소득 불균형
- 고용없는 성장 지속

2

환경적

- 기후변화
- 온실가스 저감기술
- 신재생에너지
- 유해화학 물질관리
- 생태계 보전

3

사회적

- 안전관리, 안전문화
- CSR, CSV
-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
- 자연순환형 에코도시 건설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규제에 의한 타율적 해법이 아닌 산업계 주도의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 7대 메가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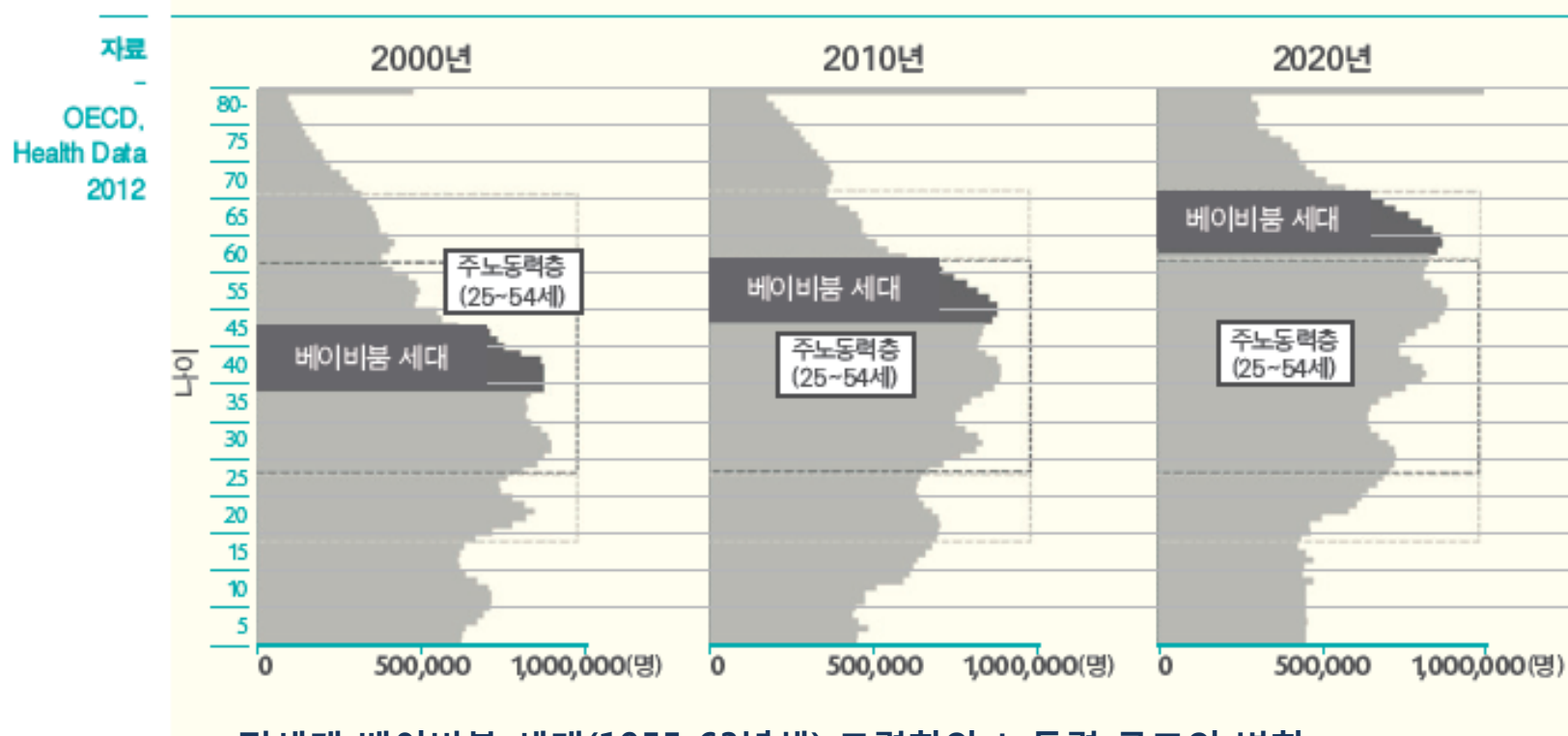
중점 분야	주요 이슈
1.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저출산, 도시화, 인구 감소, 노령화 등
2. 에너지·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 증대, 에너지 안보, 지역 정세
3. 안전관리	산업안전, 안전시설, 안전 관리, 안전 문화, 안전 리더십, 안전인식 변화
4. 고용과 인재양성	실업, 고용 불안정, 직무능력 격차 해소, 인권, 여성 일자리 창출 등
5.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및 소비, CSV, 사회적 기업
6. 물 관리	수자원관리 개선, 물 리스크 대응
7. 생태계 보존	생태계 훼손에 의한 생물 다양성 감소 완화, 식량 확보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1. 인구 구조의 변화

❖ 글로벌 트렌드



- 전세계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고령화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
- > 생산활동 둔화와 소비침체
- > 경제성장률 하락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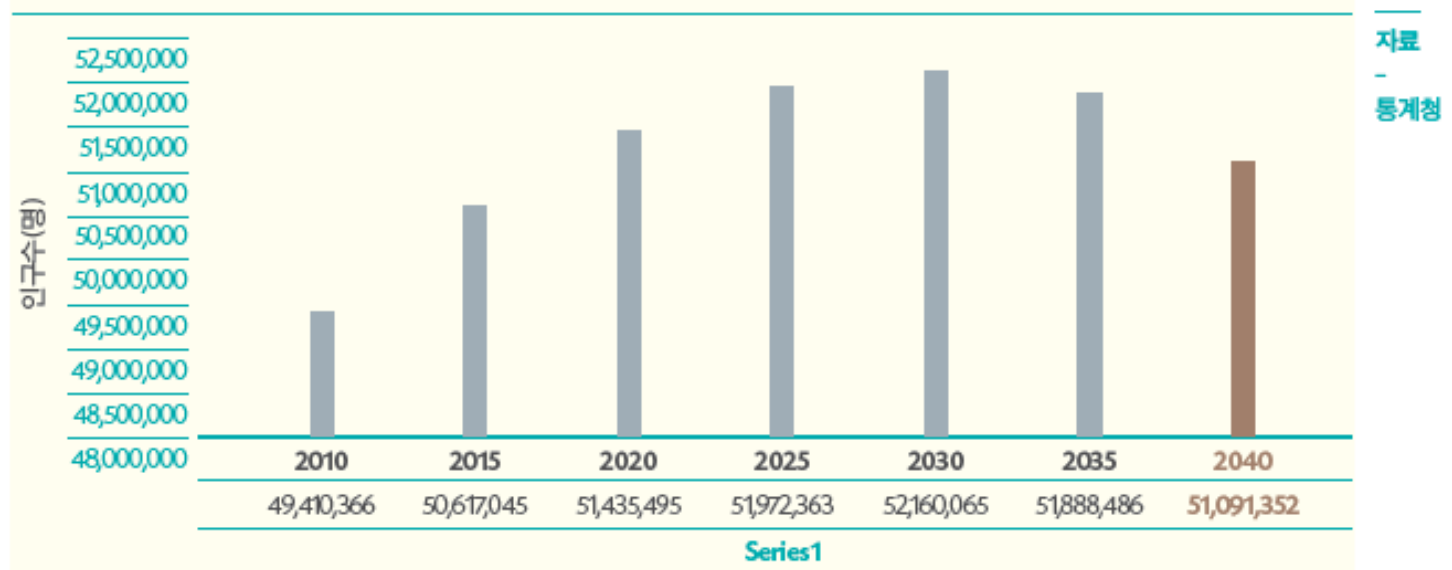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1. 인구 구조의 변화

❖ 국내현황

- 선진국 대비 빠른 고령화 -> 2011년 11% -> 2030년 24%로 세계 평균의 2배

한국 인구수 전망



❖ 산업계 시사점

(challenge)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생산성 저하 예상
- 정부의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에 따른 산업계 법인세 부담 및 연금부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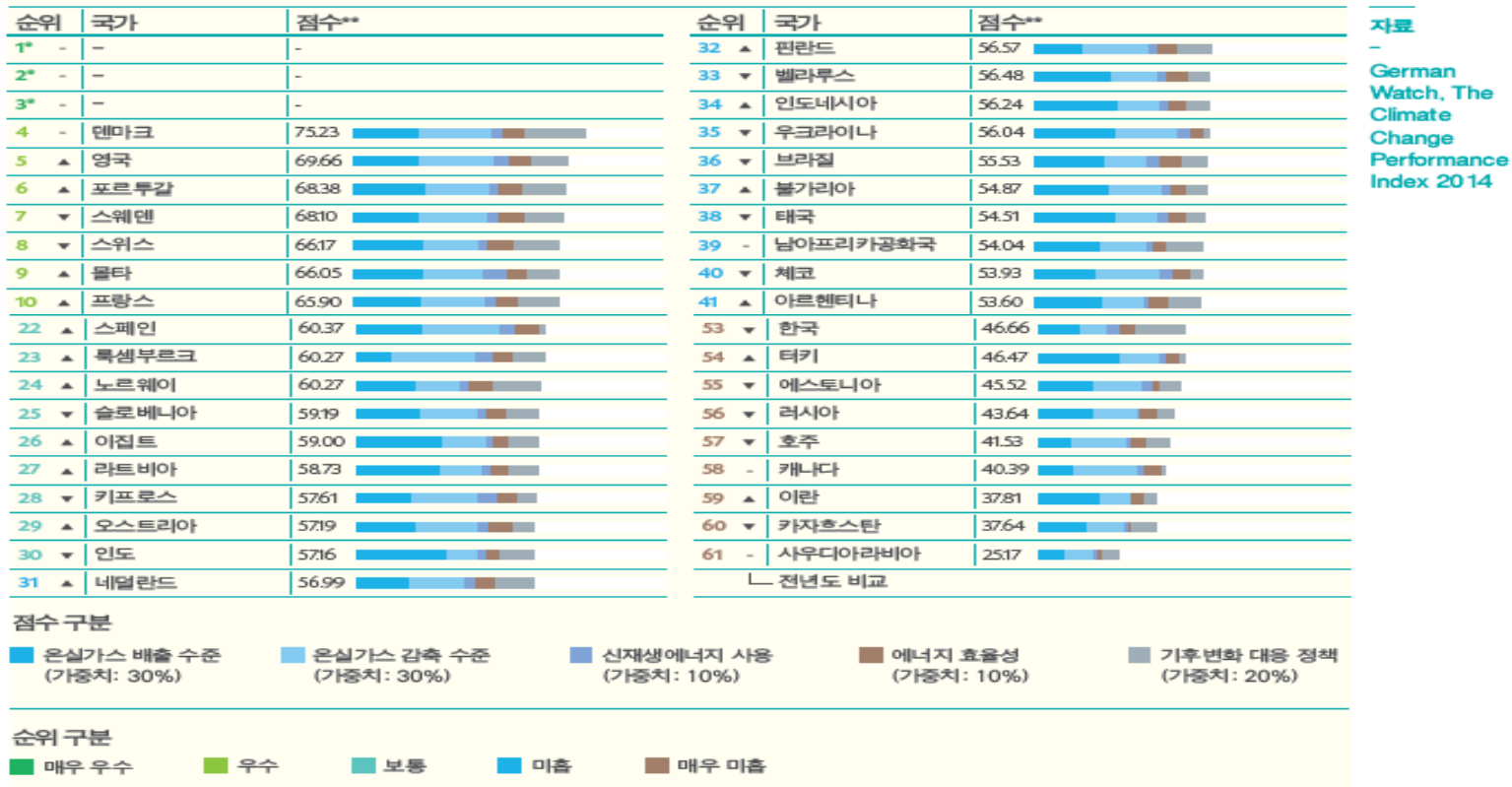
(Opportunity)

- 실버산업(silver industry) 성장으로 인한 신 시장 창출의 기회로 작용
- 2010년 33조원이던 규모가 2020년까지 연평균 14.2% 성장하여 125조원에 달할 예정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2. 에너지·기후변화

❖ 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1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세계 탄소누적배출량을 1조톤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2020년 목표 배출량보다 14% 웃도는 상태 (현재: 50.1 GtCO₂e, 2020 목표: 44 GtCO₂e)



kbcSD

-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USD 700~1000억 규모의 투자 예상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2. 에너지·기후변화

❖ 국내현황

-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 연 평균 6.9% (OECD평균 1.1%)

〈표 1〉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단위 : 백만 TOE

자료	국가	1971	1990	2002	2006	2011	2012
OECD, OECD Factbook 2014	한국	17.0	93.1	196.7	213.6	260.4	263.0
	미국	1,587.5	1,915.0	2,256.0	2,296.7	2,191.2	2,132.4
	일본	267.5	439.3	510.4	519.8	461.5	451.5
	독일	305.0	351.1	338.6	340.5	311.8	307.4
	프랑스	158.6	224.0	261.2	266.8	252.8	251.7
	영국	208.7	205.9	218.3	219.0	188.1	192.4
	중국	391.6	870.7	1,253.8	1,938.9	2,727.7	-
	OECD 합계	3,372.3	4,522.5	5,310.4	5,505.7	5,304.8	5,237.9
	세계 합계	5,530.6	8,781.9	10,262.3	11,840.9	13,113.4	-

❖ 산업계 시사점

- (challenge)**
-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국가 전체 소비량의 37%를 차지(2012년)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향상 요함
- (Opportunity)**
-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을 ESS, 스마트 그리드 등 신규 시장 사업 기회로 활용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3. 안전관리

❖ 글로벌 트렌드

OECD GDP 상위
5개국의 사고성
사망만인율 현황
(2010년)

국가	사고성 사망만인율(%)	산업계 GDP(\$)	국가 GDP(\$)	자료
영국	0.05	884,770	2,477,506	고용노동부
독일	0.18	1,269,036	3,037,694	
일본	0.22	2,445,260	4,648,478	
프랑스	0.26	821,271	2,289,830	
미국	0.38	4,709,060	13,595,666	
한국	0.78	569,731	1,098,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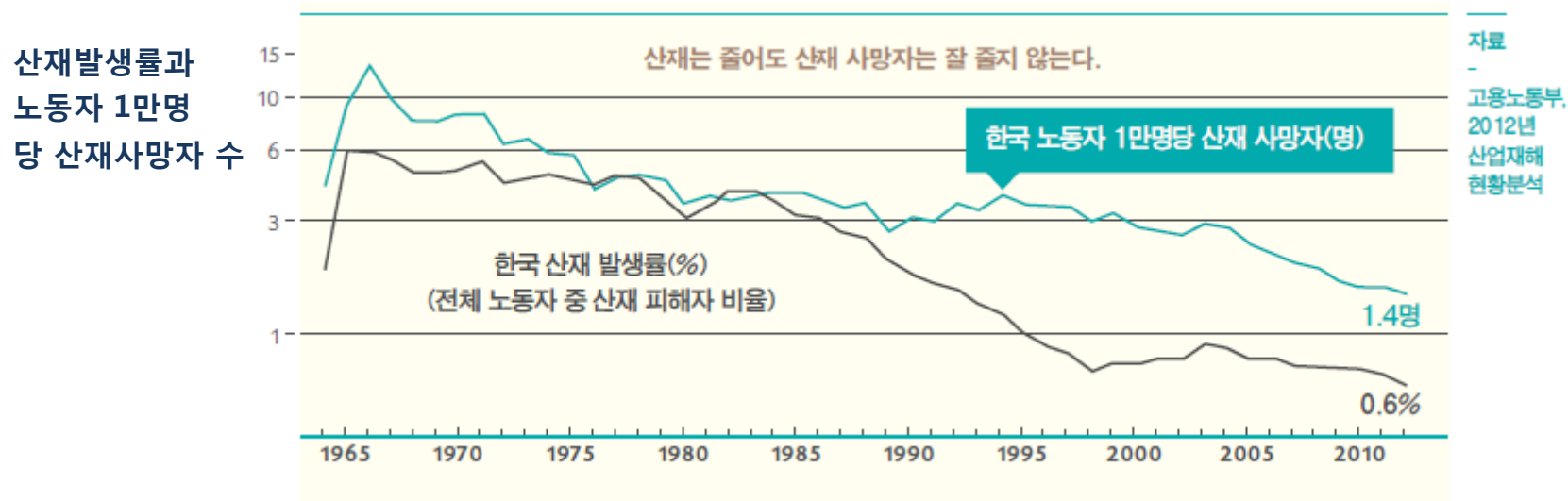
- 산업재해는 기업 생산성과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 인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
 - > 기본적인 안전보건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해 집단 직업병 발병과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실추가 늘어남
 - > 정부 안전관리 정책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3. 안전관리

❖ 국내현황

- 산업재해율은 최근 10년(2004~2013년) 23%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발생률은 여전히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계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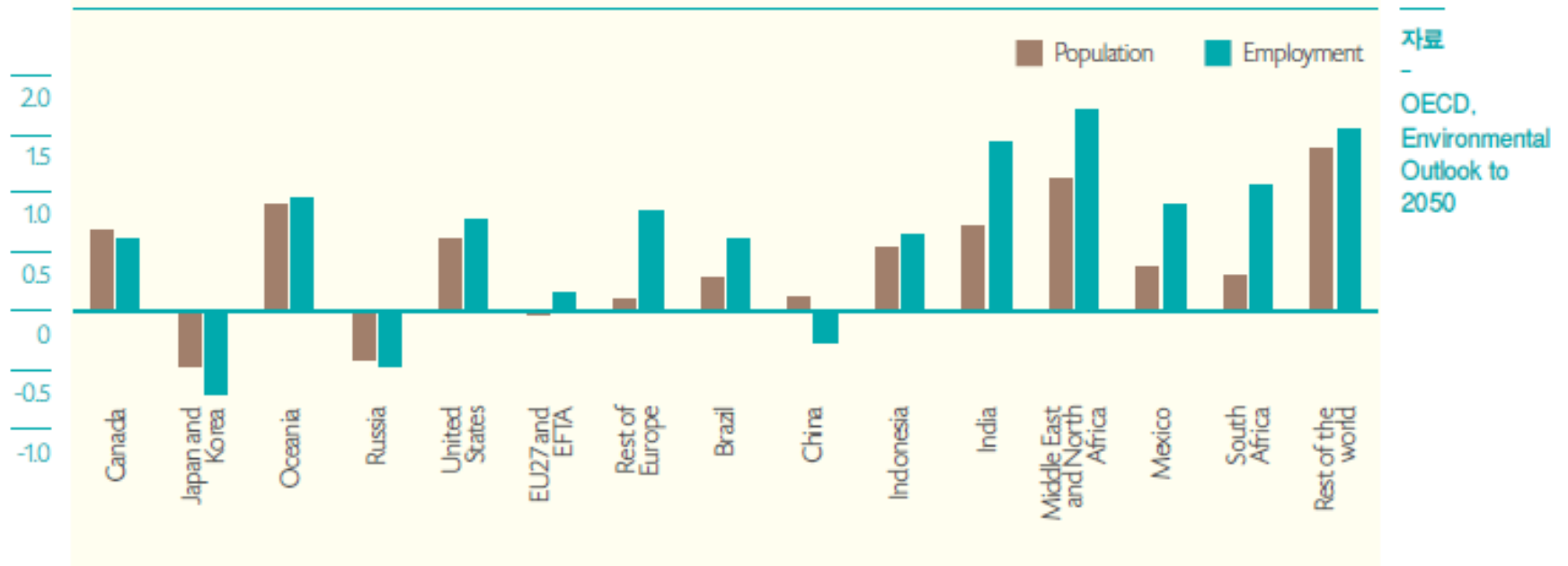
- 2012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약 5,400만일로,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93만일의 58배
- 2013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은 약 19조원
- > 무엇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기업 가치 향상 방안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안전문화 조성 교육에 힘써야 함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4. 고용과 인재양성

❖ 글로벌 트렌드

연평균 인구와
고용 성장률
2010~205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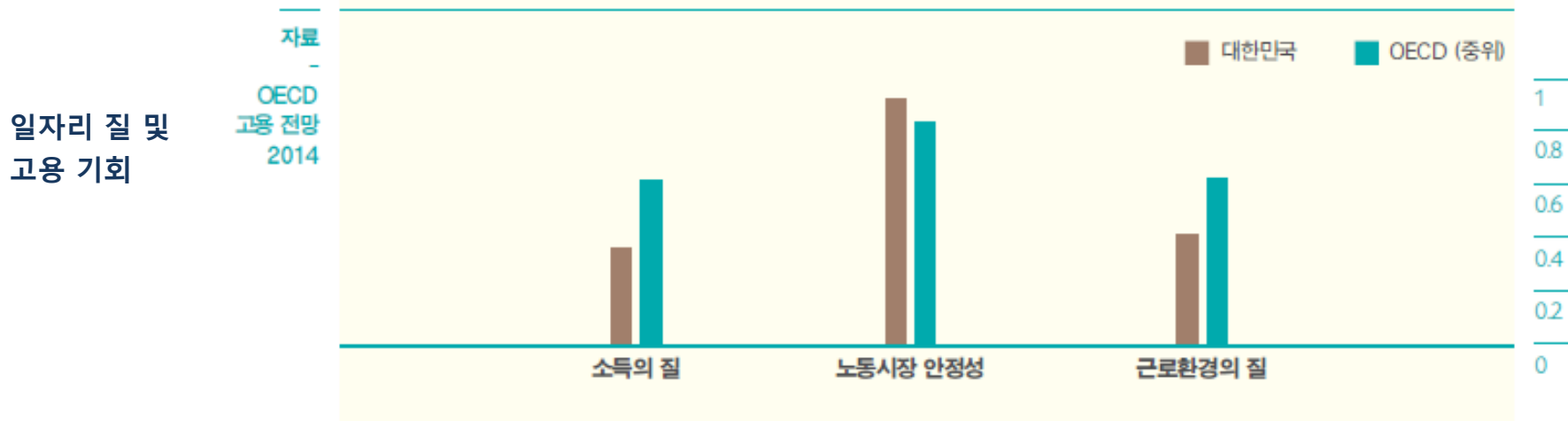
- 고용과 인재양성은 인구변화의 추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 향후 55세 이후 장년층 인구의 증가, 여성경제활동의 참가 증대 등으로 인해 노동인구는 증가하나 단순업무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4. 고용과 인재양성

❖ 국내현황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OECD평균 이상이지만 소득의 질과 근로환경의 질은 OECD 평균 이하로 향후 소득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규제 및 사회적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산업계 시사점

- (challenge)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대한 압박 가중
- (Opportunity) · 반면 무인 자동차와 항공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기회 활용가능
-> 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5.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 글로벌 트렌드

2010년
국가간
자원생산성 비교
(천원/kg)



- 에너지와 자원 관련 문제는 국가 경제의 주요 변수임
 - > 자원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같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함
-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자원효율성 향상을 국가경제의 핵심과제로 삼음
 - > “모든 폐기물=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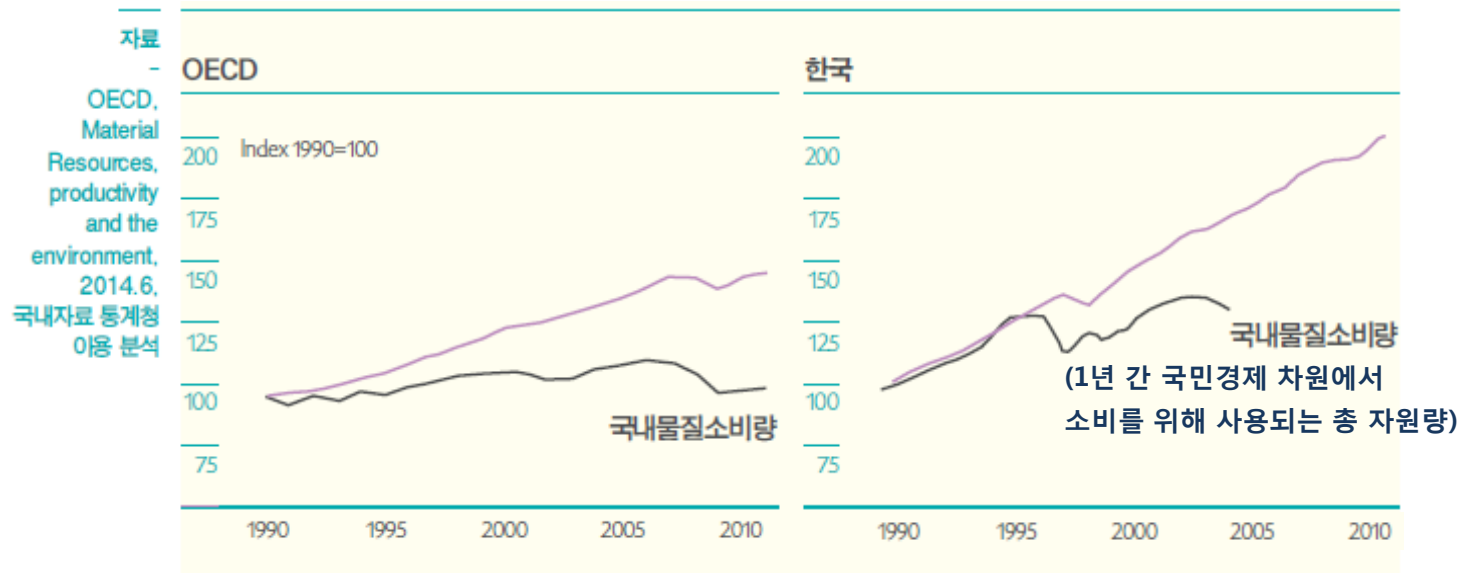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5.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 국내현황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GDP 증가 대비 국내물질소비량(DMC)은 IMF 전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차이 또한 큼

GDP 및
국내물질소비량
비교



❖ 산업계 시사점

- 경제성장 대비 자원사용량을 줄이는 '에코효율성'과 '자원 decoupling'에 대한 관심과 노력 증대 필요
- 단순 양적인 순환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체제로 전환하는 대응노력 필요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6. 물 관리

❖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리스크
영향력 순위

	2012	2013	2014	2015
1st	금융위기	금융위기	재정위기	물위기
2nd	물공급 위기	물공급 위기	기후변화	대규모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3rd	식량부족위기	장기적인 재정불균형	물위기	대량살상무기

■ 경제
 ■ 환경
 ■ 지역
 ■ 사회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5 10th Editio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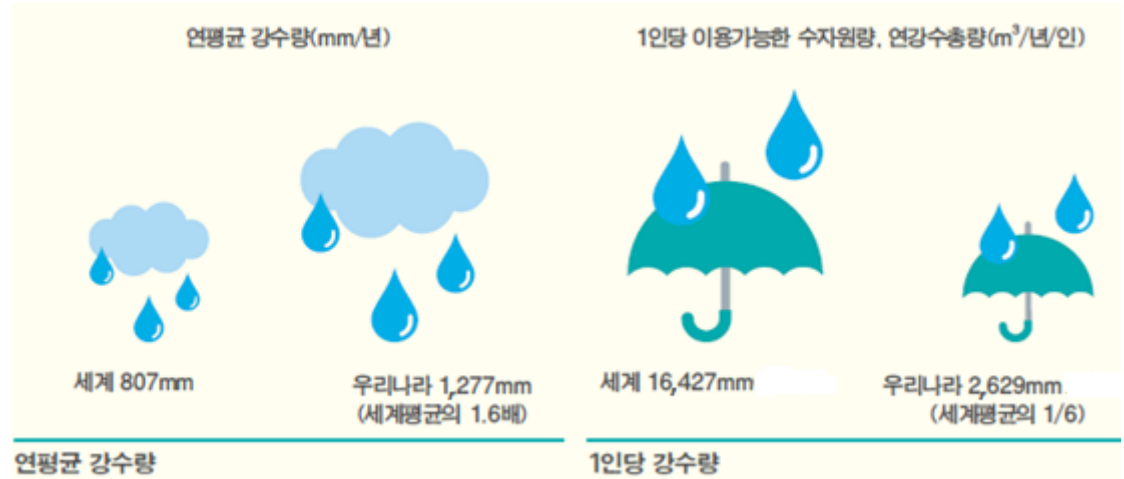
- 2015년 다보스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가진 문제로 물 위기를 선정 (영향력 측면에서 기후변화나 경제위기보다도 심각하게 인식)
- 2030년 전세계 물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6. 물 관리

❖ 국내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 강수량 편차가 심하여 연간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32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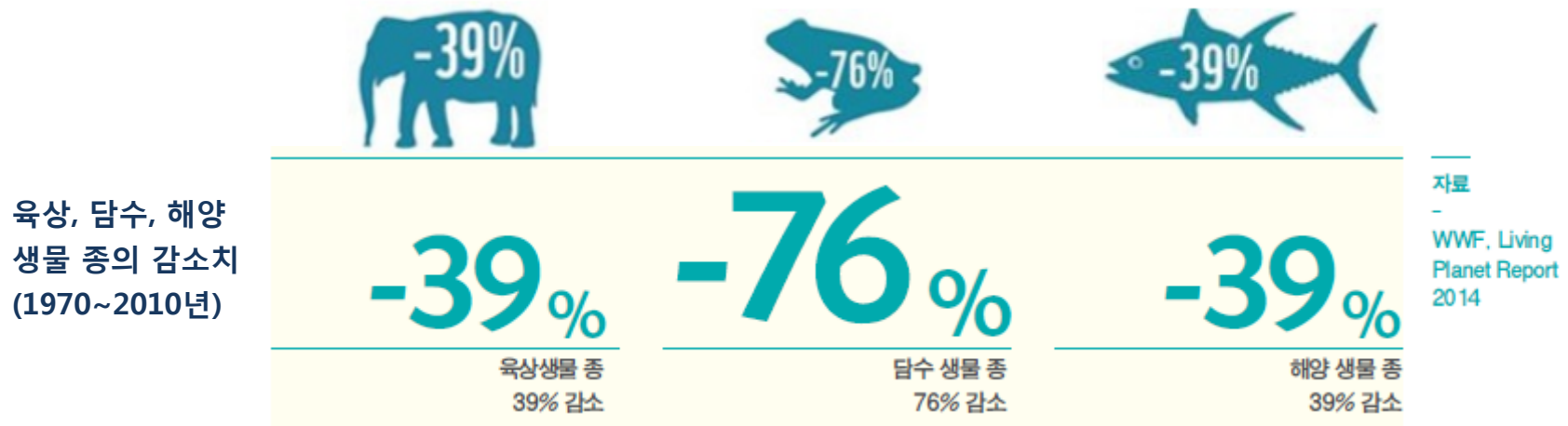
❖ 산업계 시사점

- (challenge)** · 물이 기업경영 리스크(수자원 고갈, 물가격 상승, 규제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8% (1000개 글로벌기업 대상 설문)
- (Opportunity)** · 물에 대한 위기 의식과 물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 우리나라 물산업 규모는 100억불로 세계 11위 수준
 - > 세계 물시장은 연평균 4.9% 성장하여 2025년 8,65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7. 생태계 보존

❖ 글로벌 트렌드



- 2010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1970년 대비 지구 전체 생물 종의 수가 꾸준히 감소 중
 - > 육상 동식물종은 39%, 담수생물종은 76%, 해양 생물종은 39% 감소
- 생태계 보존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 > 육상 및 해양 생태계는 1,500~2,500 기가 톤의 탄소를 저장
 - > 해양생태계 보존은 그 자체로 연간 1,290억 달러 수준의 기후조절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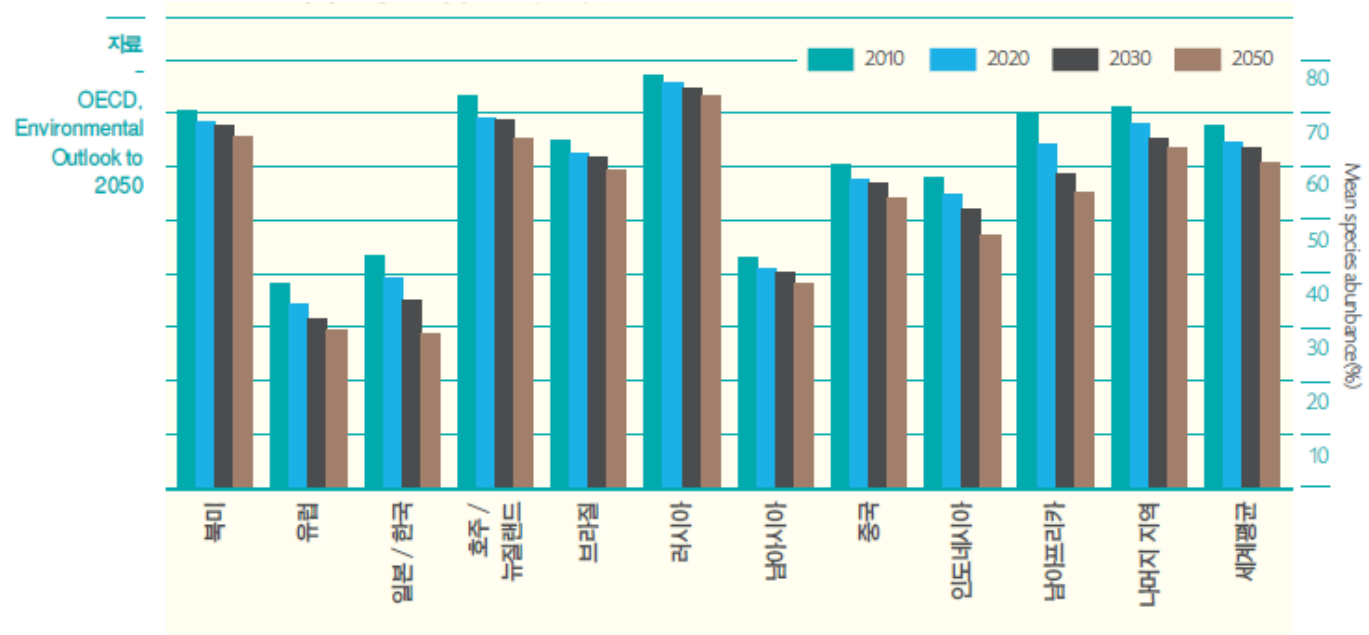
3. 21세기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 7대 메가트렌드

7. 생태계 보존

❖ 국내현황

-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면서 생태계 위협 심각 -> 매년 산림면적 약 1만2천ha씩 감소 중
- 국내에 유입된 외래 동식물은 2010년 기준 1,128종, 이 중 생태계 교란종은 16종 -> 고유종 개체 수 감소 초래

지역별 평균
육상 종 개체수
(201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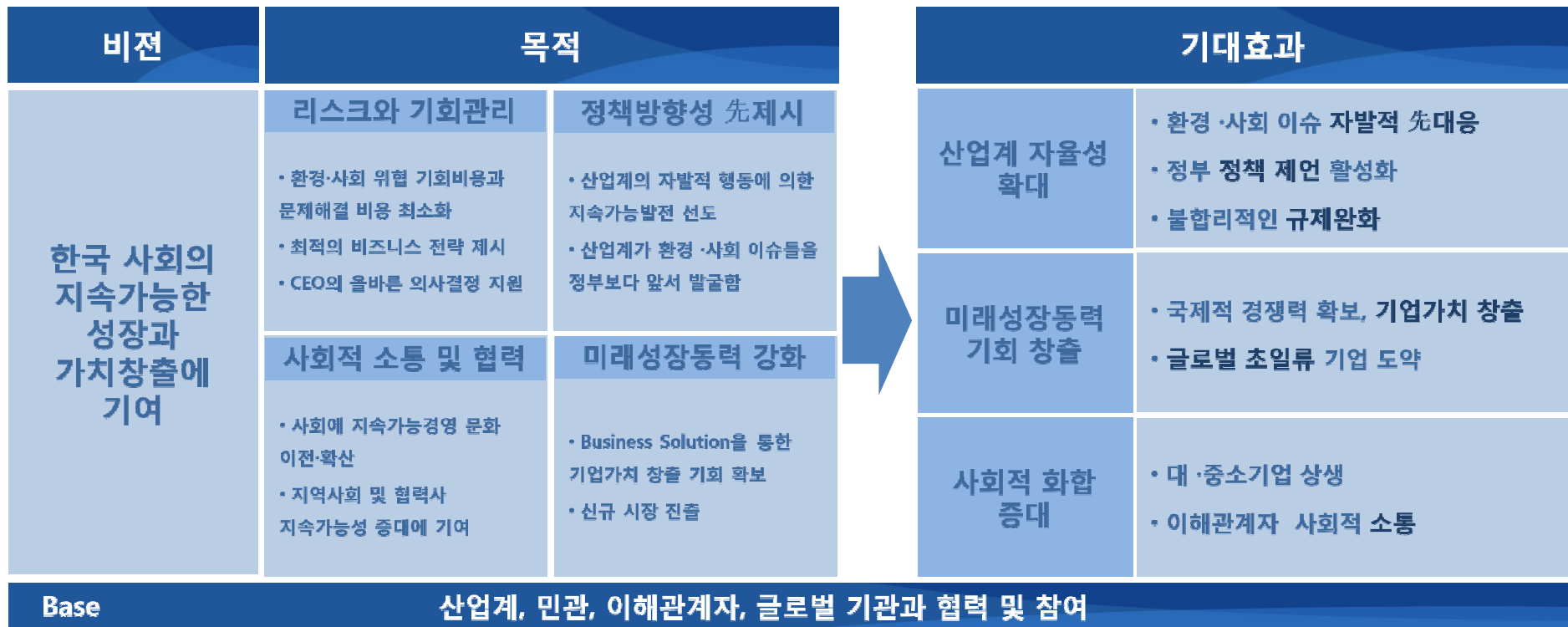
❖ 산업계 시사점

- 2014.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자국 토착종의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물자원을 산업자원으로 인식할 필요성 증대
-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 유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14년 기준 최대 6,4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산업 규모의 성장으로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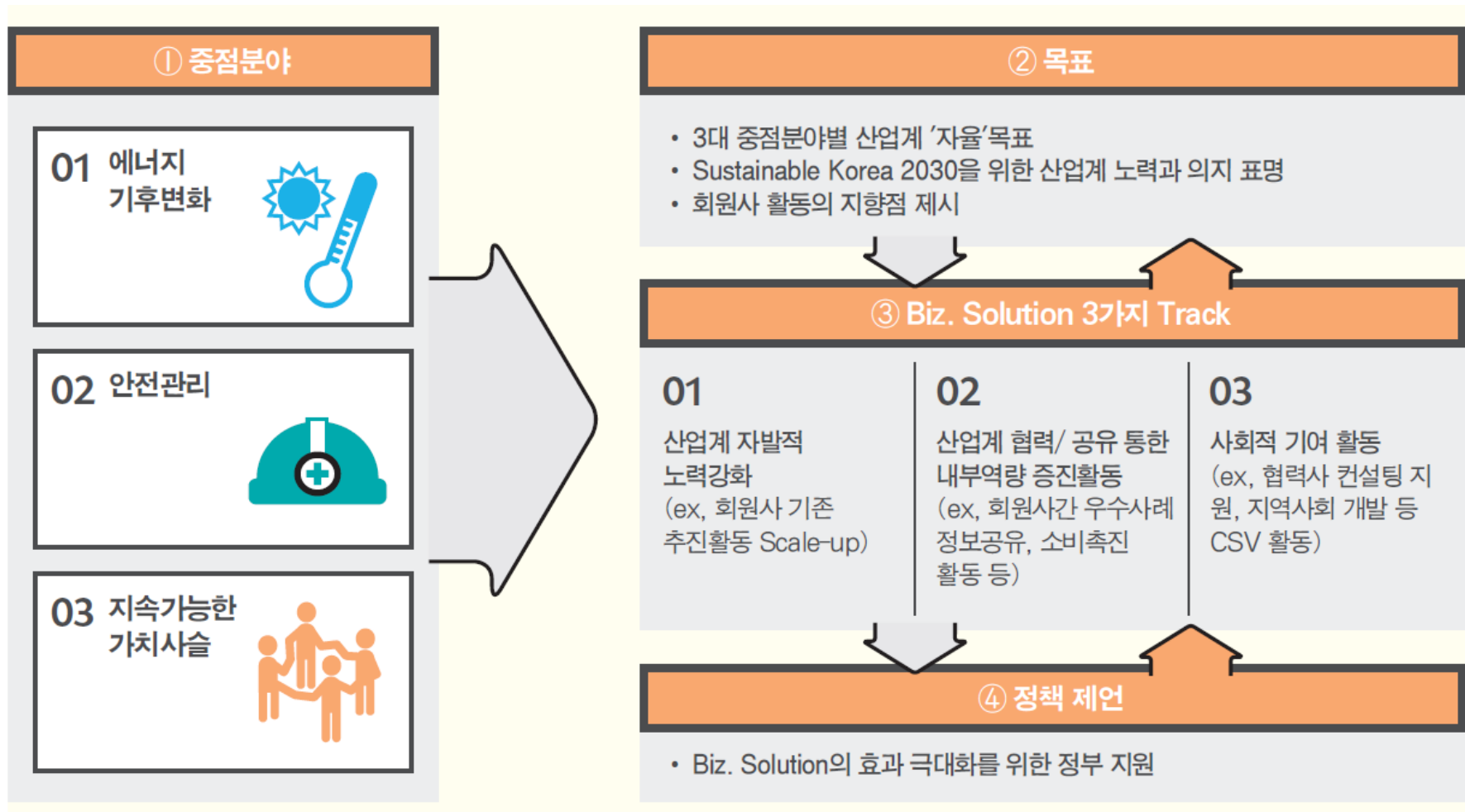
5. 산업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Sustainable Korea 2030

- 향후 15년간 환경사회분야에서 산업계가 추구해야 할 명확한 목표와 행동지침을 제시



6. Sustainable Korea 2030 4대 구성요소



7. 3대 중점분야별 목표 및 Business Solution



8.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 기업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정부,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소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 기업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협약 등 새로운 거버넌스의 생성과 실행에 실질적 협력을 해야함
수동이 아닌 능동, 관객이 아닌 주역의 역할
 -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 구축, 비합리적 규제 개선,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의사소통
 - 사회는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 자원순환형 라이프 스타일

9. 중점 분야별 정책 제언

에너지·기후변화

정부차원의 솔루션 제공 및 민관 협력 사업 확대

- 정부 차원의 글로벌 정보 및 솔루션 제공 지원 요구됨
-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기술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사업모델 플랫폼을 수립, 선도적인 기술 선점 및 보급이 필요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정부 차원의 환경 규제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에너지·환경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함
-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의 환경 규제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이러한 규제들이기업 경영·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원활동이 요구됨

저탄소 기술 및 제품 확대에 관한 정부 및 국제협력 증진

- 개발 도상국에서 에너지·기후변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수원국리스크 및 환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자개발은행(MDB), GCF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도국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가능
- 다만 국내 기업은 MDB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정부에서 MDB 사업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의향서 및 입찰제안서 작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9. 중점 분야별 정책 제언

안전 관리

안전관리 부분은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현실을 반영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며 자율안전 실천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규제의 합리화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점검, 산재예방의 효율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 안전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안전경영 지원,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예산 증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체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음

9. 중점 분야별 정책 제언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안전관리 부분은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기업의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확대를 지원

원료 수급과 생산, 사용, 폐기 등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적 사고(Life cycle thinking)를 바탕으로 자원효율성을 증대

자원순환과 관련된 제도를 규정하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여 정책 체계성과 일관성을 증대

자원 순환형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해 국내 자원생산성 수준을 측정하고 진단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과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의 설정이 필요

산업별 자원생산성 산정을 통해 산업별 자원흐름 전 과정에서의 자원관리 체계 또한 구축되어야 함



사회 전반으로 전과정적 사고(Life cycle thinking)를 확대하고, 자원순환체계를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보다 높은 수준의 자원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0. 구체적 추진 방안 사례 소개

① KBCSD-지자체-ICLEI 동아시아 저탄소 도시설계 프로그램

- 동아시아의 급격한 도시화로 기업의 저탄소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BCSD는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인 ICLEI 동아시아본부 및 ICLEI 한국사무소와 저탄소 도시설계(Energy-safe Cities East Asia)를 위한 업무협력 MOU를 3월 체결
 - ※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 Energy-safe Cities East Asia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11개 도시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도시전문가와 협력, 2030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 구현을 위해 저탄소, 저위험, 회복력 있는 도시 에너지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한국: 인제, 삼척, 전주, 청주 / 일본: 교토, 도쿄, 요코하마 / 중국: 바오딩, 이싱, 전장 / 몽골: 울란바토르
- 향후 산업계는 상기 11개 지방정부와 함께 에너지전환(energy transformation)을 위해 현재 활용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방안들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동 협력 사업을 통해 태양광, ESS, 빌딩에너지효율 등 분야에서의 회원사 신사업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GCF-CSV(공유가치창출) 연계한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사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 KBCSD는 양허성차관을 지원하는 GCF 자금활용을 위해 회원사의 개도국 CSV 사업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개도국 진출방안 추진 예정
- KBCSD 회원사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CSV 사업 분야 : ICT, 인프라/에너지, 저소득층 대상 친환경 제품/서비스 등

[참조]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은 오는 9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UN SDGs)를 발표할 예정임

KBCSD는 UN SDGs 중 KBCSD가 선정한 지속가능발전 7대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목표들에 대해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참조]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은 현재 나와있는 SDG 초안의 17개 목표를 바탕으로 존엄, 번영, 정의, 협력, 환경, 인간의 6가지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오는 9월 국가간 논의를 통해 확정하여 공표할 예정

Goal 1 빈곤문제 해결

Goal 2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 촉진

Goal 3 건강한 삶의 질 확보

Goal 4 평생 교육의 기회 마련

Goal 5 성차별 방지

Goal 6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위생능력 확보

Goal 7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Goal 9 튼튼한 인프라 건설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촉진

Goal 10 국가 안팎의 불평등 완화

Goal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및 도시 건설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의 정착

Goal 13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긴급한 조치 수행

Goal 14 바다 및 수생태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

Goal 15 육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 사회 분위기 촉진

Goal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참조] UN SDGs와 KBCSD Sustainable Korea 2030과의 연계



[참조] UN SDG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조



2015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기술개발에 기업 CEO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함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보다 온도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이 총 2,900Gt 이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1,900Gt이 배출된 것으로 추산됨

IPCC는 또한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81 ~ 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3.7°C, 해수면은 63cm 상승한다고 전망함

UN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전세계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계와 각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관련 합의를 이룰 예정임

따라서 향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000Gt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기업들의 역할도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참조] UN SDG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

UN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중 재생 에너지의 점유율을 증가시킨다.
-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에서 2배의 향상을 한다.
- 모든 나라는 자연 재앙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위험들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을 통해 미리 경고를 해야 한다.

KBCSD는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자동차 확대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 산업계는 현재 업종별로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여 마땅한 감축수단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증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경제적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의 확대,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친환경 건축물과 친환경자동차의 확대 등 친환경 산업 육성과 관련시장 창출에도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참조] UN SDG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의 정책 분야

UN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천연자원의 사용을 달성한다.
- 2030년까지, 생산성과 공급 사슬을 고려하여 전세계에서 낭비되는 1인당 음식물 쓰레기량을 반으로 줄인다.
- 2030년까지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증가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줄인다.
- 2020년까지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공기나 물, 그리고 토양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하고, 화학물질과 모든 종류의 폐기물의 통제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달성한다.
- 국제교류가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촉구하고, 보고서에 자원의 재활용 현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참조] UN SDG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생태계 보전 분야

UN은 지속적인 물 관리와 위생시설의 유용성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식수에 대해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
-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고 평등한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취약한 계층에 있는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30년까지, 오염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위험한 화학 물질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하며,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물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UN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2025년까지, 해양의 오염, 특히나 해양 쓰레기와 영양분 오염을 줄여야 함
- 2020년까지, 해양생물과 연안의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의 복구를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함
- 2020년까지, 숲, 습지 등 육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보존/복구에 힘써야 함



[참조] 에너지 · 기후변화

OECD GDP 상위 10개국의 산업부문 에너지 원단위 (2012)

국가	산업계			국가 전체		
	최종에너지소비 (koe)	GDP (\$05p)	에너지원단위 (koe/\$05p)	최종에너지소비 (koe)	GDP (\$05p)	에너지원단위 (koe/\$05p)
독일	55,685	753,090	0.07	220,982	3,158,594	0.07
일본	81,789	1,032,981	0.08	308,774	4,694,390	0.07
영국	23,970	313,771	0.08	127,570	2,534,860	0.05
프랑스	27,890	314,652	0.09	154,947	2,345,257	0.07
이탈리아	28,178	304,910	0.09	122,645	1,794,103	0.07
미국	248,349	2,322,347	0.11	1,432,733	14,231,657	0.10
스페인	20,134	182,538	0.11	84,637	1,187,053	0.07
멕시코	30,194	242,592	0.12	117,010	1,027,513	0.11
한국	47,327	370,522	0.13	166,384	1,165,254	0.14
호주	23,673	173,434	0.14	79,355	925,493	0.09
평균	587,189	6,010,837	0.10	2,815,037	33,064,174	0.09



[참조] 안전 관리

우리나라의 사고성 사망만인율 : 0.78%

- 미국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선진국 대비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

OECD GDP 상위 5개국의 사고성 사망만인율 현황 (2010)

국가	사고성 사망만인율(%)	산업계 GDP	국가 GDP
영국	0.05	884,770	2,477,506
독일	0.18	1,269,036	3,037,694
일본	0.22	2,445,260	4,648,478
프랑스	0.26	821,271	2,289,830
미국	0.38	4,709,060	13,595,666
한국	0.78	569,731	1,098,690



[참조]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OECD GDP 상위 5개국의 산업부문 폐자원 재활용 (ton) (2010)

국가	산업 폐자원 발생량(ton)	산업계 GDP(\$05P)	산업 폐자원 재활용량(ton)	산업 재활용률(%)
독일	283,456,000	1,269,036	240,810,000	72.3%
프랑스	355,081,000	821,271	200,579,000	56.5%
일본	385,988,000	2,445,260	204,733,000	53.0%
영국	33,295,821	884,770	16,246,548	48.8%
미국	N/A	4,709,060	N/A	N/A
한국	54,019,363	569,731	29,872,708	55.3%

※참고 영국은 2009년 기준 산정 수치이며, 미국은 산업부문 폐자원 발생량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확인 할 수 없음

